

영암군, 명품 축산물 생산위해 140억 지원

600농가 대상 100여개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등 기반마련
최대 15억 범위서 80% 용자
사업비 4억 한우 개량관리 등

영암군은 영암명품 축산물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6개분야 100여개사업으로 600여 농가에 140억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FTA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축사시설을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맞춤형축산 기계·장비·자재를 공급을 이뤄내 안전한 축산업 기반마련과 축사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사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축산

농가의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축사개보수·축사내 시설지원·방역시설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종별로 FTA기금사업 범위 내에서 한우의 경우 중소규모는 5억원, 대규모는 15억원 범위내에서 80%의 용자 지원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WTO, FTA 등 수입 개방과 사료값 상승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경종농가의 대체작물 재배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계 및 하계 재배면적 5200여ha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량 10만톤을 목표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및 종자 구입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조사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에 있어 재배 단지의 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300ha에

이르는 조사료 전문단지 8개소(올해 3개소 추가 지정) 농식품부에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고품질 사료 공급의 교두보 역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집중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우량암소·송아지를 선발하는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공모사업’에 응모해 3년간 사업비 최대 12억원을 확보했다. 1년 차였던 지난해에 영암축협, 한국축육개량협회와 협력하여 으뜸한우 2648두, 으뜸송아지 1217두를 선발 관리해 가축시장 출하시 일반 송아지 보다 평균 100만원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도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한우 개량관리, 브랜드 기반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한우 혈통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영암한우 생산기반 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한우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보정기(목걸이), 축사 환풍기, 면역 증강제, 미네랄블록 공급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해 한우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적극 돕는다.

또한 지난해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53개소가 지정됐고 금년에도 동물복지형 녹색농장 38개소 및 깨끗한 축산농장 75개소 추가지정을 통해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도모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금년에도 영암매력한우 등 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영암군 축산물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및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metroseoul.co.kr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모노무브 업무협약.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쪽' 활용 천연염색약 개발

나주시가 나주의 쪽을 활용해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세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최근 화장품·향수 제품 개발창업회사인 모노무브와 업무협약을 맺고 나주 쪽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모노무브’는 서울시가 서울지역 청년의 창업·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도시 관광문화자원을 연계시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등지를 둔 창업회사다.

이번에 재단과 모노무브는 협약을 통해 ‘나주쪽·천연염색 신제품 개발 협력과 자문’, ‘쪽·천연염색 관련 기술 및 연구사업 협력’, ‘양 기관 브랜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기로 했다.

/나주(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농어민 공익수당 받으세요” 전북도, 연간 60만원 지원

올 양봉농가·어가 지급대상 포함
최근 시작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2일 전북도는 도내 농어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새롭게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양봉농가와 어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고자 지난 1월 21일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단지과 포스터 등을 제작해 시·군과 공유하는 등 사업 홍보와 신청에 온 힘을 쏟아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신청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도내에 거주하더라도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어업 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 주소가 도내에 오는 5월 31일까지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양봉농가는 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으면서 사육지가 도내에 있어야 한다. 어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에 수산업과 관련된 유효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를 마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한다든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내 도(道)외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



영암군 기업체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신속PCR검사를 실시한다.

영암군, 산단 근로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신속PCR검사... 총 1.8만명 대상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삼호일반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2월 22일에서 2월 25일까지 4일간 1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공장, 아산시 귀뚜라미보일러 제조공장 등 3밀 환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여 영암군에서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대불국가산단, 삼호일반산단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영암, 신북, 군서 등 농공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현장에서 1시간 30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PCR검사로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군은 개학을 앞두고 집단생활을 하는 기숙사 입소생 약 1200여명을 대상으로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전수검사를 진행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발생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계속해서 선제적 전수검사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영양군, 주민고충 상담 내달 11일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읍부즈만 주요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처리하는 이동신문고를 다음달 11일 영양군을 방문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교육·농림·문화·환경·복지·노동·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기타 법률 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날 이동신문고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행정 분야·부패 신고·행정심판·민형사·생활법률 등 상담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20권 밖 비수급 빈곤층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地籍)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 문제 상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전남 재배 바나나 균장병 급식 공급

농협전남지역본부, 월 2톤 규모
농협전남지역본부는 2월부터 전남에서 재배되는 국내산 바나나를 경기도지역 군 장병들에게 급식으로 월 2톤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내산 바나나는 설비시설 등 초기비용이 높고, 대부분 소규모 농가에 의해 생산되고 있어 정기적인 수요처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남농협은 지난 2019년부터 전남의 아열대과일을 대표하는 ‘오매향’ 브랜드를 개발했으며, 전남의 바나나 농가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클럽을 운영하며 생산

기술을 공유하고 생산되는 시기를 분산하는 등 안정적으로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고심해왔다.

전남농협은 이번 경기도지역 군(軍) 급식 공급을 시작으로 전남 관내의 학교급식 및 대형마트 납품 등 수요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남 바나나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해남 계곡면 김현식 농가는 “농협이 판로개척을 총괄해 준 덕분에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며 농가는 고품질의 바나나 생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부산시, 새마을금고서 中소운전자금 취급

140곳서 연간 3000억 규모
부산시는 2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지역 140개의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월 2일부터 부산지역 140개 새마을금고는 부산은행을

포함한 13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취급하게 된다.

부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시중 금융기관이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부산시가 일반 시중금리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순창군 옥천인재숙 서울대 등 30명 합격 성과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올해 서울대를 비롯한 사관학교 등 주요대학에 다수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최근 2021학년도 주요 명문대학 최종합격자 발표 결과, 서울대 2명, 연세대 3명, 고려대 3명이 합격하고 사관학교에도 4명이 최종합격하는 등 수도권 대학에만 30명이 합격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 운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에 70%가 넘는 진학률을 기록해 더욱 뜻깊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순창(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